

기호학과 구성주의 시각을 통해 본 베를린과 빌리 브란트의 상호구성

— ‘베를린 장벽의 기호’와 동방정책 및 유럽통합정책의
구성과정을 중심으로 —*

노 명 환

- | | |
|---|---|
| 1. 머리말 | 를린과 브란트의 상호구
성 과정 |
| 2. 베를린과 빌리 브란트의
만남과 상호구성을 위한
전제적 의미 | 4. 베를린 장벽의 기호와 베
를린과 브란트 동방정책
의 상호 구성 |
| 3. 베를린 봉쇄, 동독 소요,
헝가리 봉기의 경험과 베 | 5.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는 기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현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어느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억도 이를 매개하는 기호들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각종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인간의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그런가 하면 역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은 주어진 기호를 인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각을 제시한다. 특정 정치가의 정책은 그의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상은 그의 정체성과 깊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각종의 기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구성될 수 있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유럽의 위기와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의 한국유럽학회 주관 학술회
의 통합유럽연구회 분과 (2012. 06. 09)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다. 역으로 그의 정책은 또한 그 정치가를 표현해 주는 기호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을 빌려 베를린과 빌리 브란트의 상호구성 과정 그 결과로서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의 구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주의 이론에서 핵심은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구성(mutual construction)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¹⁾ 이 구성주의 상호구성 원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행위와 같은 차원의 영향을 행위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기호학에서의 핵심은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기표는 가시적 실체로서 의미를 나르는 기호의 구성부분이다. 기의는 기표에 입혀지는 의미다. 기표에 의미가 입혀짐으로써 기호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기의는 사람들에 (행위자들에) 의해 상황의 맥락 속에서 부여된다. 기호가 상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의가 달라지면서이다.²⁾ 구성주의적 맥락에서 볼 때 구조는 기호가 될 수 있으며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구성은 특정의 기호를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기호가 내포하는 기의가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구성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구조가 행위자에 의해 부여되는 기의에 따라 그 성격이 정해지는 기호일 수 있음은 구성주의자들이 구조를 달리 표상(representation)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³⁾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베를린 장벽을 기호로 설정할 때, 기표

1)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Audie Klotz/ 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Barnett, Michael,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본고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상호구성’이라는 개념은 구성주의 이론에서 제시된 ‘mutual construction’의 번역어임을 밝힌다.

2)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2011 (1판 24쇄); 손홀 지음 (김진실 옮김), 『기호학 입문. 의미와 맥락』, 도서출판 비즈앤비즈 2005.

3)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Audie Klotz/ 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p. 109.

는 물리적 실체로서 장벽이며 기의는 그 장벽이 상징하는 의미다. 그것은 단절과 대결을 상징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평화를 위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당위성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베를린 장벽의 기호를 통해 구조와 행위자 사이에 상호구성이 이루어지면서 냉전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새롭게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상호구성들은 서로 다른 정책의 내용과 정책이 실시되고 수용되는 ‘토양’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다루듯이 필자가 보기에 베를린에서 브란트는 냉전시대의 특징을 읽고 평화의 시대를 견인하는 지도자로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베를린은 브란트에 의해 냉전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구성되어 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를린 장벽의 구축은 이러한 상호구성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은 베를린이라는 공간과 브란트라는 정치 행위자 사이의 구성주의적 상호 작용 속에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립되어가는 정책들은 또한 동시에 베를린과 브란트 사이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쳤다. 즉, 베를린과 브란트의 상호 작용은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정책들의 추진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동서냉전의 상징 공간으로서의 베를린과 정치가로서 브란트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어 갔다. 다시 말해 베를린은 브란트에게 그의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의 구성을 위해 주요한 자극을 주고 배움의 교과서 그리고 또한 실습장의 역할을 제공해 주었다. 즉, 브란트는 베를린에서 분단 시대를 극복하는 현실적 정책 목표들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다. 베를린은 브란트에게 서로 다른 그룹들 사이, 특히 대립하는 동서 진영 사이의 상호 소통을 통한 변증법의 미래를 열어 가는 정치 지도력을 체득하게 해주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깨닫게 해 주었다. 베를린의 현실은 브란트로 하여금 독일의 과거청산을 더욱 확실히 추구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고 이러한 동인에 근거한 그의 정책들은 베를린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실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이 과정을 구성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을 기호학적인 방법과의 접목을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호학이 의미의 창출과 해석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때 냉전시대 브란트의 베를린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개발을 조명할 수 있는 유익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⁴⁾

2. 베를린과 빌리 브란트의 만남 그리고 상호구성을 위한 전제적 의미

나치에 반대하는 망명투쟁을 수행하던 브란트에게 베를린은 제국의 수도였고 악의 권력의 중심이었다. 그에게 베를린은 강대국 지향의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문화의 상징이었다. 독일의 파시즘과 나치즘은 그러한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독일 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면 행진하던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등은 그러한 베를린의 심장이었다. 그래서 브란트는 베를린 보다 평화와 복지를 지향하는 스칸디나비아 중립국들의 도시들을 좋아했다. 그는 민족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전평화 운동과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운동을 지지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시점에서는 베를린은 파괴와 절망의 도시로 변해있었다. 베를린은 전쟁, 파괴와 절망 그리고 그 전쟁책임의 상징이 되었다. 1946년 겨울 베를린에서 ‘노르웨이의 베를린 군사대표부 공보관 (Presseattaché der norwegischen Militärmission)’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브란트는 당시의 도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1946년 겨울의 베를린은 폭탄 자국, 구덩이, 갯더미, 폐허더미, 이전에 집이 있던 자리임을 거의 알 수 없는 폐허, 마치 노아의 방주(方舟) 이전에 살던 원시 괴물의 찢긴 내장처럼 땅에서 빠져 나온 전선과 수도관의 모습이었다. 난방도 없고, 불도 없고, 모든 정원에는 무덤이 하나씩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마치 움직임 없는 구름처럼 뒤덮인 썩는 냄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베를린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세계의 ‘변방’에 있었다.”⁵⁾ 브란트가 보기에 베를린은 무서운 역사의 형벌을 받고 있었

4) 김경용, 『앞의 책』, p. 40.

다. 수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국가의 분단 틀 속에서 도시의 분할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인위적인 분단을 통해 베를린은 ‘새로운 독일문제’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전에 독일문제가 유럽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유럽의 평화질서를 위협하는 현상적 구조를 뜻했다면, ‘새로운 독일문제’는 복잡하게 분단된 베를린과 독일이 유럽과 세계에 던지는 불안과 위협의 문제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것은 또한 독일인들의 생존과 장래의 문제였다. 이 독일의 분단과 베를린의 분할은 독일에겐 전쟁책임을 묻기 위해 그리고 독일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동서 냉전의 전개와 함께 베를린은 곧 전 세계 냉전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기호화되었다. 그러면서 다음 장들에서 설명하듯이 그러한 베를린은 또한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베를린에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베를린을 위해 브란트는 세계적인 평화의 정치가로 성장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베를린과 브란트의 만남은 극히 비극적인 도시와 비극적인 탄생이력을 가진 한 인간이 상호구성을 통해 베를린을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시기 베를린은 위에서 말한 그 역사에 기인하여 그야말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브란트는 그의 탄생과 성장과정의 역사에서 보듯이 비극의 운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사생아 어머니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다.⁵⁾ 그는 일찍이 사회민주

⁵⁾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 106.

⁶⁾ 브란트는 1913년 뤼베크(Lübeck)에서 태어났고 그의 원래 이름은 헤르베르트 에른스트 카를 프람(Herbert Ernst Karl Frahm)이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난 어머니 마르타 (Martha Frahm)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의 외할머니 막드 빌헬미네(Magd Wilhelmine)가 사생아 마르타 (Martha)를 키우다가 루드비히 하인리히 카를 프람(Ludwig Heinrich Karl Frahm)과 결혼했다. 마르타는 그녀의 의부인 루드비히 하인리히 카를 프람(Ludwig Heinrich Karl Frahm) 받았다. 그런데 마르타가 다시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가 브란트였다. 브란트는 탄생과 함께 마르타 (Martha Frahm)의 의부이며 자신의 호적상 외할아버지인 루드비히 하인리히 카를 프람(Ludwig Heinrich Karl Frahm)에 의해 헤르베르트 에른스트 카를 프람(Herbert Ernst Karl Frahm)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루드비히는 호적상의 외할아버지로서 브란트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다. Willy Brandt,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1989, pp. 86-89;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19-20.

당 청년당원이 되었으나 1931년 10월 탈퇴하고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당인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 SAP)’에 가입했다. 브란트는 1933년 2월 나치의 독재 정권이 시작되자 같은 해 4월 19세의 나이로 노르웨이 망명길에 올랐다. 망명길에 오르면서 그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망명지에서 그는 SAP의 기관지 기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망명저항 운동 속에서 생사를 가르는 고난의 순간들을 겪으면서 대학진학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는 삶을 살았다.⁷⁾ 브란트는 노르웨이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다. 나치가 패망하고 베를린에 왔을 때 그는 노르웨이 시민이었다.

그런데 그는 전후에 독일인으로서 베를린에서 일하며 살고자 하여 노르웨이 정부가 제안하는 모든 다른 공직상의 제안들을 뿌리치고 ‘베를린의 노르웨이 군사대표부 공보관 (Presseattaché der norwegischen Militärmission)’ 자리를 수용했다. 그만큼 그는 베를린으로 오고 싶어 했다.⁸⁾ 전쟁 중에 망명지에서 그가 그렇게 증오하던 ‘악마’의 소리들과 정책들을 쫓아내던 베를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운명을 베를린과 함께 하려한 결정은 심사숙고한 결과이고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⁹⁾ 그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유럽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베를린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¹⁰⁾ 그는 베를린에 와서 베를린 사민당 당원들과 만나고, 특히 그곳의 당시 사민당 지도자 로이터(Ernst Reuter)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¹¹⁾ 브란트는 베를린 사민당 활동을 결심하고 독일로 다시 귀화했다. 이 때 그는 빌리 브란트를 그의 호적상의 공식이름으로 채택했다. 베를린 지역의 사민당 의장

7) Willy Brandt,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1989, pp. 90-92.

8) Willy Brandt, “Zwei Vaterländer. Deutsch-Norweger im schwedischen Exil - Rückkehr nach Deutschland 1940-1947”, bearb. von Einhart Lorenz, Bonn 2000 (*Berliner Ausgabe*, Bd. 2), Nr. 26.

9) Willy Brandt, *Mein Weg nach Berlin. Aufgezeichnet von Leo Lania*, München 1960, p. 25.

10) Willy Brandt, “Zwei Vaterländer. Deutsch-Norweger im schwedischen Exil - Rückkehr nach Deutschland 1940-1947”, bearb. von Einhart Lorenz, Bonn 2000 (*Berliner Ausgabe*, Bd. 2), Nr. 1.

11) Willy Brandt, *Erinnerungen. Mit den “Notizen zum Fall G.”*, erw. Ausgabe, Berlin und Frankfurt/Main 1994, p. 149.

단 보좌역 (Berlin-Beaufragter des Parteivorstandes) 자격으로 그의 정치 인생과 일상의 삶을 시작했다.¹²⁾ 나치가 패망한 전후에 폐허더미의 베를린을 접하면서 브란트는 베를린이 평화스러운 독일의 수도이면서 유럽 속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였다. 브란트는 베를린의 비극적 운명을 보면서 망명시절 그가 집중적으로 사유한 민족주

12) 그가 베를린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처음 하게 된 것은 망명지 노르웨이에서 SAP의 기관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베를린에 잠깐 들린 때였다. 1936년 9월 말에서 그해 성탄절 전까지의 기간에 그는 ‘메트로’라 불리는 베를린의 SAP 지하조직을 돕는 일을 했다. SAP 본부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 지침에 따라 베를린 지부를 지도하고 격려하며 이들의 공고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는 그의 동거녀 게르트루트 마이어의 가짜 남편인 노르웨이 학생 군나르 가스란트의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노르웨이 역양의 독일어를 사용 학생 신분으로 살았다. 그는 쿠어퀴어스텐담의 한 셋집에서 거주하고 운터덴린덴(Unter den Linden) 거리에 있는 프로이센 국립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며 비밀 결사의 행동책 역할을 수행했다. 가끔은 빌헬름 푸르트벵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를 찾아 정서적 생활을 채우기도 하였다. 그 때의 짧은 베를린 생활은 브란트에게 그의 삶의 의미와 미래의 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베를린이 악의 제국의 수도라는 사실 말고는 베를린은 그의 마음에 들었다. 이 경험이 전후에 그가 베를린에서 살고 또 일하고자 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 때 그는 베를린은 악의 제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중심지로서 베를린이 도시가 갖는 아름다움, 베를린 필하모니와 같은 다양하고 수려한 문화의 전통이 꽃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베를린으로 탈바꿈시켜야 했다. 그것이 그 때 그가 품게 된 베를린에 대한 꿈이었다. 그는 베를린의 정치가로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당시 SAP에 대한 그의 도움은 여러 이념차이에 다른 논쟁들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그는 회고했다. 이러한 활동과 삶의 여적을 남기고 그는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66-67. 또 다른 측면에서 브란트가 베를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4년 베를린에서 추진되다 실패한 보수주의 측의 저항운동과 관련해서였다. 칼 괴어텔러, 울리히 폰 하셀, 루드비히 벡, 클라우스 쉐크 슈타우펜베르크 백작으로 이루어진 그룹과 또 헬무트 제임스 몰트케 백작과 솔츠의 아담 폰 트로트가 이끄는 저항그룹은 히틀러를 살해하고 저항운동이 성공한 이후 독일의 재건과정에서 브란트의 정치적 대부 율리우스 레버와 브란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영입하고자 하였다. 1944년 6월 그는 이들과 접촉을 가졌다. 보수주의 저항 그룹은 1944년 7월 20일 거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베를린의 역사적·정치적 역할에 대해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깊은 인상을 얻게 되었다. 그는 여기서 보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히틀러의 파시즘과 결탁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 그는 크게 분노했었다. 이는 그가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주의노동자당(SAP)을 버리고 사회민주당(SPD)을 다시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89-91.

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의 폐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성찰하였다. 그러면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운동의 대의를 다시 되새겼다. 베를린은 그러한 유럽통합의 센터가 되어야 했다. 베를린의 비극은 민족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유럽통합의 미래를 위해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베를린 스스로 유럽통합 운동의 대의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했다. 베를린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져야 하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했다 (Berlin bleibt frei).” 그는 소련 점령 지역의 베를린에서 강압적으로 사민당(SPD)이 공산당(KPD)에 통합되어 사회주의통일당(SED)이 형성된 것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¹³⁾ 그는 독일이 나치의 유산을 일소하고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와 민주주의 속에서 유럽과 세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대국 지향의 독일인 정체성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일로 다시 구성되어야 했다. 이 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의 베를린에 대한 사명의식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브란트가 전후에 그렇게 강렬하게 베를린에서 살고자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적인 것¹⁴⁾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베를린과 브란트 사이에 상호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독일인과 유럽인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게 하는 의지적 전사(前史)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베를린 봉쇄, 동독 소요, 헝가리 봉기의 경험과 베를린과 브란트의 상호구성 과정

1948년에 처음 그리고 1958년에 두 번째로 발생한 베를린 봉쇄 사건들과 1953년의 동베를린 사건 그리고 1956년의 헝가리 사태는 그에게 서방

¹³⁾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107-108; Willy Brandt, *Erinnerungen. Mit den "Notizen zum Fall G."*, p. 149.

¹⁴⁾ Willy Brandt, *Mein Weg nach Berlin*. p. 25.

의 단절 필요성을 절감하고 단절과 대결보다 접근을 통한 변화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의 사건들이었다. 서방세계의 단합과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베를린은 자유를 향유하는 지역으로 생존할 수 없음이 분명했다. 그는 또한 소련점령의 독일지역 및 동유럽 국가들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 개입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렇다고 그러한 개선을 위해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근본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면서 동독의 인권상황을 거론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또한,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켰다.

베를린 봉쇄 사건들은 베를린을 냉전의 상징으로서 기호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첫 번째 베를린 봉쇄시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서방세계는 비행기를 통해 서베를린에 물자를 조달했는데, 이는 서방세계의 자유를 위한 헌신과 승리라는 상징성을 구성하였다. 이 첫 번째 베를린 봉쇄의 발단은 서방연합 3개국(미국, 영국, 프랑스)이 독일의 각 점령지역을 아우르는 통일적인 경제재건 문제에 대해 소련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였다. 즉, 1948년 6월 20일 이들 점령지역에서만 화폐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베를린 문제가 비롯되었다. 이 화폐개혁안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은 같은 달 23일 밤부터 서베를린과 위의 서방3개 점령지역을 연결하는 모든 통로를 막았다.¹⁵⁾ 이것이 첫 번째 베를린 봉쇄였다. 서방연합국은 수송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공중으로 생필품을 조달했다. 소위 “공중다리(Luftbrücke)”를 통해 서베를린 주민들을 지원했다. 이리하여 ‘공중다리’는 서베를린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서방연합국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며 베를린에 머물겠다는 결의의 상징이 되었다.¹⁶⁾ 결국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포기 하였다. 이는 11개월 지속되었다. 브란트는 이 사건을 통해 베를린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실감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서베를린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노르웨이에서 베를린으로 올 때의 결심

¹⁵⁾ Ann Tusa/ John Tusa, *The Berlin Blockade*, London 1988.

¹⁶⁾ Paul Steege, “totale Blockade, totale Luftbrücke?”, in: Burghard Ciesla/Michael Linke/Thomas Lindenberger (Hrsg.), *Sterben für Berlin? Die Berliner Krisen 1948:1958*, Berlin 2000, p. 59-77.

과 일치했다. 서방세계의 단결된 그리고 단호한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인 수 있는지도 생생하게 인지했다. 그는 서방연합국이 쉽게 베를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이 측면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브란트는 1948년 초 이미 서방연합국이 베를린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베를린이 버려지면, 그것은 전체 독일을 위해 그리고 서유럽을 위해 숙명적인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연합국은 이곳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¹⁷⁾ 그러면서도 그는 서방연합국이 베를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졌다.¹⁸⁾ 이렇게 확신과 불안의 양면성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베를린은 그의 베를린 정책의 출발점으로서 그리고 목표로서 설정되는 하나의 기호였다. 그 전제적 출발점은 서방세계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목표는 “베를린은 자유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Berlin bleibt frei.)” 였다.¹⁹⁾ 자유로운 베를린의 수호를 위해 서방세계의 지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했다. 그는 사민당 지도자로서 베를린의 생존 및 자유수호의 필요성과 독일문제의 해결 그리고 서방세계의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하나의 체계적인 틀 속에서 묶을 수 있는 논리와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또한 소련을 비롯한 동쪽의 공산권 지역과 대립관계로만 치닫는 것은 베를린을 위해 몹시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가기 시작했다. 막연하나마 대안의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를린 전문가로서 정치가의 경력을 쌓아갔다. 그가 보기에 ‘베를린의 생존은 서방세계의 단합에 달려 있다’는 논리와 전범으로서 독일의 죄가 그리고 그 수도 베를린의 운명은 상호 긴밀한 함수관계에 놓여 있었다. 나치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독일과 베

¹⁷⁾ Siegfried Heimann, “Einleitung”,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Berliner Ausgabe Bd. 3, p. 6; Marek Andrzejewski/ Hubert Rinklake, “Man muß doch informiert sein, um leben zu können”, Erich Brost - Danziger Redakteur, *Mann des Widerstandes, Verleger und Chefredakteur der “Westdeutschen Allgemeinen Zeitung”*, Bonn 1977. p. 144.

¹⁸⁾ Siegfried Heimann, “Einleitung”, p. 6.

¹⁹⁾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Berliner Ausgabe Bd. 3.

를린은 유럽과 세계의 냉전 문제 실타래의 핵심 매듭이었다. 그는 유럽통합의 대의를 살리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가 풀려야 유럽통합도 실현될 수 있고 세계적 냉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베를린과 독일 문제의 해결은 유럽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유럽통합은 당시 냉전의 현실 속에서 서유럽통합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고 브란트는 군사 및 경제적·정치적 차원의 서유럽 통합에 서독이 참가하는 것을 불가피한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브란트는 당시 서독의 서유럽통합을 반대하던 사민당의 당원이면서 집권당인 기민당의 아데나워의 서유럽통합 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²⁰⁾ 그는 슈마허(Kurt Schumacher)와 같은 사민당 지도자 및 대다수 당원의 서유럽통합 반대 정책을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브란트는 1950년 5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사민당 전당 대회에서 독일의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 가입을 찬성하였다. 당시 거의 사백 명의 대의원 중 여섯 명의 베를린 대의원을 포함한 겨우 열한 명만이 브란트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극소수의 찬성자들은 의장단의 최종 결의인 표결 과정에서 반대의 표시로 기권했다.²¹⁾ 1952년 8월 사민당은 본에서 당 총재직과 교섭단체장직에 올렌하우어(Erich Ollenhauer)를 선정했다. 올렌하우어는 서유럽통합 지지자였기 때문에 브란트를 포함한 많은 당원들은 서유럽통합에 관해서 당의 노선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노선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55년 5월 서독의 나토 가입문제에 대해 사민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겨우 1957년 7월 초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 (로마조약)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시함으로써 노선변화를 명백히 했다. 이 과정에서 브란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²²⁾

1953년 3월 공포정치의 화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었다. 그의 죽음은 소련뿐만 아니라 소련의 통제 영향권 아래 있는 다른 공산권 지역에서도 민주화의 희망을 갖게 했다. 같은 해 6월 17일부터 동베를린을 비롯한 동독 지역의 250개 이상의 도시에서 크고 작은 소요와 동베를린으로부터의 대량 탈주가 일어났다. 이는 같은 해 13일 사회주의통일당(SED) 정

20)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 116.

21)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116-117.

22)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128-129.

치국이 결정한 노동규준의 강화 정책 때문에 비롯되었다. 이 파업과 시위 물결은 자유선거에 대한 요구로 번졌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간섭에 대한 반대를 의미했다. 이에 대해 당시 베를린 시에 주둔한 소련 사령부와 동독의 국가권력은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탱크를 투입하였다. 7월 1일까지 8천명이 체포되고 계엄령에 따른 총살 등으로 50명이 사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빌리 브란트가 분명히 목격하고 절실히 깨달은 것은 동독의 무고한 인민들은 크게 피해를 보고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 졌다는 사실이었다. 동독의 소련에 대한 종속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위해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아무 것도 없었다. 이는 브란트에게 기존의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깨닫게 했다.²³⁾

1956년 헝가리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브란트에게 다가왔다. 1956년 10월 말 헝가리에서 소련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이전 공산당 지도자 임레 나지를 중심으로 한 이 봉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순식간에 개혁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부터 탈퇴하였다. 그러자 11월 4일 소련 탱크들이 투입되어 이 인민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했다.²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인민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헝가리 공산당 권력은 강화되고 소련에 대한 종속은 더욱 심화 되었다. 이 때에도 서방세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브란트는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또다시 대안의 정책 구상들을 위한 여러 생각들을 거듭했다. 그의 사유와 행위가 대결을 지양하면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 1956년 헝가리 봉기 진압에 항의하며 베를린의 정당들은 1953년의 동베를린과 동독에서의 사태를 회상하며 시장관저인 쇠네베르크(Schöneberg)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브란텐부르크 문으로 행진하였다. 이 때 브란트는 사민당 베를린 위원장으로서 ‘이는 동독과 헝가리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권력을 자극할 뿐이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논리로서 이들을 막았다. 위에서 말한 그의 새롭게 구성되는 생각들을 실천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의 행동은

²³⁾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21;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118-119.

²⁴⁾ Siegfried Heimann, “Einleitung”, pp. 20-21.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베를린 시민들에게 각인되었다.²⁵⁾

1957년 브란트는 베를린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시장이 되고 나서 그는 두 번째 베를린 봉쇄 (1958-1959)를 경험했다.²⁶⁾ 이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탈출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도시를 완전히 양분하기 위해 서였다. 이 상황에 대해 브란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백만의 동베를린 지역 사람들과 2백만의 서베를린 지역 사람들 사이에 ‘중국의 만리장성’ 이 들어섰다.”²⁷⁾ 그는 동베를린 지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견고히 소련 점령지역에 통합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때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앞에서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한 생각들을 정책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했다. 이 때의 베를린 봉쇄를 경험하면서 브란트는 다시금 서방동맹의 강화 필요성과 동서 대립이 악화될수록 베를린의 서방 점령지구는 소련제국의 자의에 노출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서베를린의 안전과 서독으로의 공식적 귀속을 최우선적으로 고심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의 결과 브란트는 시장으로서 평화공존의 개념을 발전시켜 갔다.²⁸⁾ 브란트의 이 평화공존 개념은 1956년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ev)가 제안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다음 장에서 설명할 1961년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가(John F. Kennedy) 1960년 대선 기간 동안 주창한 평화 전략(peace strategy)에서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1960년 11월 하노버의 SPD 전당대회에서 브란트는 두 상이한 체제간의 평화공존 속에서 선의의 경쟁 개념을 제안했다.²⁹⁾ 이는 베를린에서 브란트가 냉전시대의 특징을 읽고 평화공존 정책을 개발하는 베를린과 브란트의 상호구성 과정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를린의 상황은 그에게 기호였고 이 기호를 통해 베를린

25) Der Tagesspiegel vom 10. November 1956.

26) Hanns Jürgen Küsters, “Konrad Adenauer und Willy Brandt in der Berliner Krise 1958-1963”, in: *Vieter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Jahrgang 40 (1992), Heft 4, pp. 493-495.

27) Willy Brandt, “Chinesische Mauer durch Berlin”, in: *Sozialdemokratischer Pressedienst*, Nr. 142 vom 22. November 1948.

28)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59.

29)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 138.

과 브란트는 상호 구성되어 갔다. 이 과정을 통해 브란트는 냉전시대의 평화공존과 화해 및 교류·협력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인권을 향한 변화를 꾀하는 지도자로 구성되고 베를린을 소통과 평화의 상징으로 구성해 갔다. 그런데 진정한 베를린의 위기와 그 가운데 정치 행위자인 브란트와 상호 구성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베를린 장벽 설치와 함께 찾아왔다.

4. 베를린 장벽의 기호와 베를린과 브란트 동방정책의 상호 구성

1961년 8월 13일 소련과 동독이 서베를린을 둘러싸는 장벽을 쌓고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것이다. 이 장벽설치로 인해 동서 베를린 사이의 소통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동독이 소련의 훈수를 받으며 이 장벽을 설치한 이유는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행렬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야말로 분단의 벽이 굳어지고 동서 긴장이 팽배해졌다. 이 장벽으로 인해 분단은 완전히 고착될 수 있었고 이는 전 세계 냉전의 가장 명료한 가시적 상징물로 들어섰다.³⁰⁾

브란트는 즉각적으로 장벽 설치를 되돌리기 위해 서방세계의 단결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8월 14일 그는 연방정부 외무부 장관 브렌타노에

³⁰⁾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59; Hanns Jürgen Küsters, op. cit., 4, pp. 527-539. 베를린 장벽과 철조망과 함께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의 탈출 행렬은 또하나의 냉전 상징물이었다. 이 탈출 시도는 많은 경우 죽음의 대가를 치루었다. 탈출사망자 추모를 위한 ‘기억의 터’가 브란텐부르크 문 옆에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추모행렬을 끌고 있다. 1962년 8월 17일 18세의 건축공인 페히터 (Peter Fechter)가 장벽을 넘어 탈출하다 동독 (국경)수비대에 의해 총살되었다. 그가 동독 지역에 쓰러져 신음할 때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야기했다. Siegfried Heimann, “Einleitung”, pp. 49-50. 당시의 굳게 닫혀 봉쇄된 브란텐부르크 문은 더 이상 개선문이 아니고 분단의 상징물로 변신했다. 동서 베를린을 넘나들 때의 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 (Checkpoint Charlie) 는 분단시대 일상의 상징적 단면이었다. 베를린은 죄와 벌의 상징 공간이고 역사였다. 그러면서 베를린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상징으로서 부각되었다.

게 편지를 보내 연방정부 아테나워 수상이 그의 영향력을 통해 서방세계의 강력한 조치를 결집해 낼 것을 촉구했다.³¹⁾ 8월 16일에는 미국대통령 케네디에게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브란트는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서베를린에 3대강국(미국, 영국, 프랑스)으로 구성된 안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³²⁾ 그러나 케네디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전쟁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장벽설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3대강국 안보시스템의 비현실성을 적시했다. 케네디는 평화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독일과 베를린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기반위에서 서베를린의 안보를 보장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은 베를린을 위한 미군 수비대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³³⁾ 이것은 동방과 서방의 각자 세력범위를 인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테탕트를 추구하는 그의 평화전략의 연장선이었다. 브란트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된 것에 실망했지만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이를 자신의 평화공존 구상의 정책에 대해 본원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다. 케네디의 테탕트 및 평화 정책의 의미를 자신의 지금까지의 베를린 상황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케네디의 입장은 브란트 자신이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경험한 바에 의거하여 습득한 평화공존 구상과 대단히 유사한 것이고 케네디는 그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³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브란트가 베를린 봉쇄를 겪으면서 그리고 1953년

³¹⁾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67; Typed draft of a telex from Willy Brandt to Federal Foreign Minister Heinrich Brentano with hand-written entries by Willy Brandt, 14 August 1961.

³²⁾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68.

³³⁾ John F. Kennedy's letter to Willy Brandt, classified, 18 August 1961, *Struggle for Freedom. Willy Brandt 1913-1992, Permanent Exhibition at the Schöneberg City Hall in Berlin*, pp. 48-49; "Vermerk des Regierenden Bürgermeisters von Berlin, Brandt, über den Besuch des Vizepräsidenten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Johnson in Berlin 22. August 1961",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70; Helga Haftendorn, *Deutsche Außenpolitik zwischen Selbstbeschränkung und Selbstbehauptung 1945-2000*, Stuttgart und München 2001, pp. 174-176.

³⁴⁾ Hans-Jürgen Grabbe, *Unionsparteien, Sozialdemokraten und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1945-1966*, Düsseldorf 1983, pp. 380-382.

의 동베를린, 1956년의 헝가리 사태를 경험하면서 깊이 인식하게 된 점은 동독 및 동유럽 지역의 불안이 클 때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베를린은 더욱 위협에 처해진다는 것이었다.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이들 나라들이 소련에 더욱 종속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브란트가 볼 때 베를린 장벽의 구축은 그동안의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독이 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징표였다. 이 장벽 설치물 계기로 대결이 더욱 심화되면 그것은 베를린의 상황과 동독 및 동유럽의 인권 상황에 몹시 위태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궁극적으로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의 불안증을 해소해 주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존재와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했다. 그는 이 지점에서부터 그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평화공존을 정착시킬 방안으로 서방측이 그리고 서베를린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했다.³⁵⁾ 그는 또한 이러한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서베를린의 안전보장 필요성과 장기적으로는 독일분단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는데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정책적 구상을 케네디의 평화전략과 적극적으로 연결시켰다. 베를린 시정을 위한 그의 보좌관들인 바(Egon Bahr), 슈츠(Klaus Schütz), 알베르츠(Heinrich Albertz), 슈팡엔베르크(Dietrich Spangenberg)와 함께 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들은 케네디의 평화전략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현상(status quo)을 인정하고 이 기반 위에서 평화공존의 테탕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후 현상(status quo)이란 독일의 분단된 현실, 분할된 베를린의 상황, 동독의 존재,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오더-나이제 강이 국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했다. 오더-나이제 강의 국경은 이전 독일 영토의 동쪽 부분을 크게 축소시켰다. 따라서 현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독일의 분단과 영토상실을 영구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이 현상을 인정하면서 동독과 동유럽지역의 불안증을 해소하고 동시에 서베를린의 안전보장 방책으로 서독으로의 귀속을 확정 짓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동서독 사이에 상호 인정과 공존의 원칙 속에서

³⁵⁾ “Manuscript der Rede Brandts auf einer Klausurtagung der Berliner SPD am 8. September 1962”, in: AdsD (Archiv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WBA (Willy Brandt Archiv), A3, 142.

상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볼 때 이것이 전후 현실에서 독일과 베를린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었다. 당시 강대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독일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적인 작은 걸음으로(Kleine Schritte) 이것은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된 분단을 넘어 서로가 소통을 이어가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작은 걸음들의 바탕 위에서 상호 신뢰가 깊어질 때 통일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³⁶⁾ 이러한 논점에서 그들은 1민족 2국가론을 구상했다.

그런데 브란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현상을 인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독일의 역사적인 죄가를 받아들이고 그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독일문제를 반성하고 과거청산을 통해 독일을 새롭게 구성해 내는 강력한 의지를 뜻했다. 과거청산 행위로서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독일과 동유럽 및 서유럽 나라들과의 중요한 화해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유와 의지의 표명에 이르러 브란트는 자신 개인의 삶의 여정들인 나치에 대한 저항 투쟁과 망명생활을 나치시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독일을 구성해 내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에 연결시키는 하나의 일관된 궤적을 그리게 되었다. 이 일관된 그의 삶과 정책의 궤적은 베를린 및 독일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베를린 시장이라는 지위와 역할 속에서 총화를 이루었다. 그는 1963년 6월 15일 투칭에서의 연설을 통해 그의 구상을 공표했다.³⁷⁾ 이때 또한 연설을 했던 그의 보좌관인 바(Egon Bahr)가 이러한 브란트의 정책을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äherung)”³⁸⁾로 집약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당대에 그리고 후세에 그들 정책의 키워드가 되었다. 지금까지

³⁶⁾ Willy Brandt, *Koexistenz - Zwang zum Wagnis*, Stuttgart 1963. 그가 후에 수상이 되어 실시한 동방정책은 바로 이것의 실질적인 실천이었다.

³⁷⁾ “Rede des Regierenden Bürgermeister von Berlin, Brandt, im Politischen Club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15. Juli 1963”,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92; “Denk ich an Deutschland.” Typed manuscript with band-written entries by Willy Brandt, Willy Brandt's speech on the occas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Protestant Academy Tutzing on 15 June 1963.

³⁸⁾ “Die Vermerk Bahrs vom 14. Juni und 3. Juli 1963”, in: AdsD, WBA, A 6, 121; Schedule of engagements of the Governing Mayor, 12-16 July 1963, 4 July 1963.

지 설명을 통해서 볼 때 브란트는 현실정치가로서 이러한 방향의 생각을 현실 정책으로 입안하지 못했는데 장벽설치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케네디와의 소통 후 체계적인 현실정책으로 입안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63년 6월 26일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하였다. 브란트와 케네디는 그들의 정책을 서로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³⁹⁾ 이 때에 케네디는 베를린 장벽 앞에서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유대를 표했다. 그와의 만남 후 브란트는 동베를린과 교류·협력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작은 걸음들(Kleine Schritte)”의 정책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책의 추진 결과 1963년 12월 17일 베를린인들의 동서 방문 허가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케네디가 방문을 마치고 간 후부터 이 시기까지 동서 베를린 사이에 이루어진 치열한 협상들의 결과였다. 1966년까지 추가적인 협정들이 체결되었다.⁴⁰⁾ 이렇게 하여 장벽을 넘어 접촉을 이어갔고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가는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동서 베를린을 오갈 수 있도록 통행증(Passierscheine)이 발급되었다.

결론적으로 보아 이 베를린 장벽의 구축은 앞에서 말한 평화공존 전략에 대한 브란트의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현실 정책으로 이를 실현하는 의지를 발현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베를린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장벽이 설치되면서 냉전에서 화해로, 과거청산을 향한 강한 의지의 상징기호로 급격히 변화되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후에 동방정책으로 알려지는 브란트 정책의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브란트는 베를린에서 시작된 작은 걸음들이 독일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유럽 전체 차원에서 단절이 아니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무엇보다도 서방의 단결 노력, 서방통합이 가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 서유럽통합은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으로 완성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서 독일문제와 베를린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⁴¹⁾ 이것이 그의 동방

³⁹⁾ Andreas W. Daum, *Kennedy in Berlin. Politik, Kultur und Emotionen im Kalten Krieg*, Paderborn 2003;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91.

⁴⁰⁾ “das Protokoll der Vereinbarung” in: LAB, B Rep 002/11766.

⁴¹⁾ Willy Brandt, *Koexistenz - Zwang zum Wagnis*, Stuttgart 1963; “Rede des

정책의 핵심인데 이렇듯 동방정책은 유럽통합 정책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은 동전의 양면으로 설정되었다.⁴²⁾ 이러한 동방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동서 냉전이 완화되고 화해와 교류·협력이 촉진되고 동방과 서방이 서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추후에 그가 외무장관으로서 그리고 수상으로서 성공적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동서 유럽을 아우르는 집단안보체제로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성립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가 베를린에서 습득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에 힘입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은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오더-나이에 강을 독일 폴란드 간 국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브란트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⁴³⁾ 그가 1970년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란드를 방문하였을 때 수상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나치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냉전시대의 독일문제와 유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는데, 정책적 차원의 과거 청산 노력도 베를린 장벽 설치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⁴⁴⁾

이 과정 속에서 브란트와 그의 정책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인물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갔다. 이에 힘입어 베를린은 나치와 전쟁의 도시에서 자유와 평화의 도시 지향성으로 그 상징성을 바꾸어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달리 말해 베를린 장벽이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베를린이라는 공간과 브란트라는 정치 행위자의 상호구성 과정이었다. 이 상호구성 과정을 통해 베를린 장벽은 분단과 적대의 상징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탄생 기점을 의미하는 기호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를린 장벽이라는 기호는 물리적 장벽의 기표와 함께 단절과 적대의 상징

Regierenden Bürgermeister von Berlin, Brandt, im Politischen Club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15. Juli 1963",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op. cit., Nr. 92.

42) 브란트가 베를린 시절에 발전시킨 동방정책의 밑그림들과 사상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는 Wolfgang Schmidt, *Kalter Krieg, Koexistenz und Kleine Schritte. Willy Brandt und die Deutschlandpolitik 1948-1963*,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001)를 참조.

43)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221-223.

44)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pp. 204-205.

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상호이해와 화해·협력의 기점이라는 상징의 이중의 기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기의를 바꾸는 데는 브란트라는 행위자가 그 중앙에 놓여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갖는 이러한 이중의 기의는 점차적으로 독일 전체에서, 유럽 전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분단과 대결, 폐쇄와 억압의 상징이면서 또한 동시에 과거청산, 화해, 협력, 평화를 향한 새로운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브란트는 이중의 기의를 가진 이 베를린 장벽 기호를 가지고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법의 냉전극복을 위해 베를린 시민, 독일인, 유럽인, 그리고 세계인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이라는 기호가 내포하는 기의를 브란트라는 정치 행위자가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구성되어 가는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에 기초한 실제의 정책과 역사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⁴⁵⁾ 즉, 베를린 장벽의 기호를 중심으로 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과정은 분단시대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갔다.

불행하게도 1963년 11월 케네디가 암살되고 브란트는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그의 집무실이 있는 쇠네베르크 시청 앞 광장을 “케네디 광장”으로 명명하였다.⁴⁶⁾ 이는 1963년 6월 케네디가 다녀간 것을 추념하는 의미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케네디 광장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베를린의 상징성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억의 터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전쟁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의 터다. 브란트는 이 광장을 넘나들며 3년간 더 베를린 시장직을 수행했다. 브란트는 1966년 서독 외무부 장관이 되고 1969년 서독 수상이 되었다. 그는 외무부 장관이 되면서 베를린을 떠나 본으로 이사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케네디 광장의 기호는 위에서 설명한 중대한 역사적 기의들을 품고 있다 하겠다.

45) 브란트의 투청 연설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SPD 기록보존소의 신문기사들 참조, AdsD, Dep. Bahr, 1/EBAA 000345. 1963년 8월 27일의 SPD의장단 앞에서의 브란트의 보고 내용, ADsD, SPD-PV, Präsidium Protokolle 1963.

46) “Berlin trauert um einen Freund”, in *Pressedienst des Landes Berlin*, Nr. 231 vom 23. November 1963.

5. 맺음말

본고에서 보았듯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을 빌려서 베를린과 브란트의 상호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인식상의 매우 유익한 점들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한 정책들이 일순간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해주고 구조와 행위자 사이에 특정 기호의 역할과 함께 하나의 생물의 성장과 같은 상호구성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정책이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구사되는 계기를 이루는 신념이 베를린 이라는 공간과 브란트라는 정치 행위자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는 베를린에서 브란트가 냉전시대의 특징을 읽고 정책을 개발하는 맥락을 보여주는 구체적 과정이기도 했다. 베를린의 상황은 그에게 기호였고 그 기호들을 통해 그는 냉전시대의 화해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와 인군의 지도자로 구성되고 그는 동시에 베를린, 특히 베를린 장벽을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부터 소통과 평화의 기호로 구성해 갔다

베를린 장벽에 대해 대결과 적대의 상징과 소통과 화해·평화라는 이중의 기의가 마련된 것은 동서 냉전 관계에서 중요한 전기였다. 점차적으로 소통과 화해·평화의 기의가 베를린 시민, 독일인, 유럽인, 세계인들에게 더욱 각인 된 것은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기의가 새롭게 구성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하며 기의의 새로운 구성은 기호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며 행위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기존에는 수용될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들의 입안과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이는 트라우마로 점철된 과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청산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 그리고 체제의 공존 및 통일로 가는 과정을 위해서 구성주의적 관점과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점을 제시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의 구축과 함께 베를린과 브란트 사이의 상호구성 과정과 기호로서의 장벽의 의미변화가 새로운 유럽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전인해 낼 수 있었다. 베를린과 브란트의 상호구성은 동서독 간의, 동서유럽 간, 그리고 유럽 국가들 간의 상호구성으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상호구

성 과정들은 동서독 화해와 평화통일 그리고 전체 유럽통합의 길을 닦아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될 때 이를 유럽인 공동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전체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의 정체성 구성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려고 했던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비극의 도시 베를린과 비극의 인생역정 빌리 브란트는 그들의 만남 속에서 상호구성을 통해 좌절을 희망으로, 전쟁을 평화로, 비극을 행복으로 탈바꿈 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호구성 과정에서 행위자인 브란트가 베를린의 현실을 읽고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았고 베를린은 브란트에게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영감과 지식을 제공해 주고 그러한 방향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기호로 작용하였다. 기호학과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이러한 측면의 연구들이 앞으로 보다 정치한 연구들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게 보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민음사 2011 (1판 24쇄)
-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도서출판 빗살무늬 2001
손홀 지음 (김진실 옮김), 『기호학 입문. 의미와 맥락』, 도서출판 비즈앤비즈 2005
- 오디 클로우츠/ 시실리아 린치 (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Audie Klotz/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 Andrzejewski, Marek / Rinklake, Hubert , “Man muß doch informiert sein, um leben zu können”, Erich Brost - Danziger Redakteur, Mann des Widerstandes, Verleger und Chefredakteur der “Westdeutschen Allgemeinen Zeitung”, Bonn 1977

- Barnett, Michael,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Berlin trauert um einen Freund”, in *Pressedienst des Landes Berlin*, Nr. 231 vom 23. November 1963
- Brandt, Willy, *Erinnerungen*, Frankfurt am Main 1989
- Brandt, Willy, *Koexistenz - Zwang zum Wagnis*, Stuttgart 1963
- Brandt, Willy, *Erinnerungen*. Mit den “Notizen zum Fall G.”, erw. Ausgabe, Berlin und Frankfurt/Main 1994
- Brandt, Willy, *Mein Weg nach Berlin*. Aufgezeichnet von Leo Lania, München 1960
- Brandt, Willy, “Chinesische Mauer durch Berlin”, in: *Sozialdemokratischer Pressedienst*, Nr. 142 vom 22. November 1948
-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Berliner Ausgabe Bd. 3
- Daum, Andreas W. , *Kennedy in Berlin. Politik, Kultur und Emotionen im Kalten Krieg*, Paderborn 2003
- Giddens, Anthony ,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 정희태, 권진현 역, 『사회구성론』, 자작아카데미 1998,
- Grabbe, Hans-Jürgen , *Unionsparteien, Sozialdemokraten und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1945-1966*, Düsseldorf 1983
- Haftendorn, Helga , *Deutsche Außenpolitik zwischen Selbstbeschränkung und Selbstbehauptung 1945-2000*, Stuttgart und München 2001
- Heimann, Siegfried , ‘Einleitung’,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Berliner Ausgabe Bd. 3
- Küsters, Hanns Jürgen , “Konrad Adenauer und Willy Brandt in der Berliner Krise 1958-1963”, in: *Vieter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Jahrgang 40 (1992), Heft 4, pp. 493-49
- Manuscript der Rede Brandts auf einer Klausurtagung der Berliner SPD am 8. September 1962, in: AdsD (Archiv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WBA (Willy Brandt Archiv), A3, 142

das Protokoll der Vereinbarung in: LAB, B Rep 002/11766

Schmidt, Wolfgang, *Kalter Krieg, Koexistenz und Kleine Schritte. Willy Brandt und die Deutschlandpolitik 1948-1963*,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001)

Steege, Paul, "totale Blockade, totale Luftbrücke?", in: Burghard Ciesla/Michael Linke/Thomas Lindenberger (Hrsg.), *Sterben für Berlin? Die Berliner Krisen 1948:1958*, Berlin 2000

Der Tagesspiegel vom 10. November 1956.

Tusa, Ann/ Tusa, John, *The Berlin Blockade*, London 1988

Die Vermerk Bahrs vom 14. Juni und 3. Juli 1963, in: AdsD, WBA, A 6, 121

(한국외대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관학과 교수, hoannoh@hanmail.net)

주제어: 기호학, 구성주의, 빌리 브란트, 베를린, 동방정책

논문투고 : 2012.12.28. 심사완료 : 2013.2.10. 게재확정 : 2013.2.11.
--

<Abstract>

**Mutual Construction between Berlin and Willy Brandt in
light of Semiotics and Constructivism**

- focused on Symbol of Berlin Wall and Construction Process of
Ostpolitik and European Integration Policy

Noh, Meung-Hoa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olicies express the ideas of the politicians and these ideas have deep and close relations with the cultural identity of the politician. His identity can be constructed through communication based on the symbols. In a reversed sense, the identity of the politician can influence the formation of the symbol. In this context, the author wants to illuminate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Ostpolitik* and European Integration Policy of Willy Brandt. According to this study, mutual construction between Structure (Berlin) and Agent (Willy Brandt) based on the symbol of Berlin Wall could establish new identity and interests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toward peace or deepen the Cold War identity and interests. These processes of mutual construction influenced the attitude of the people in various ways. To the position of the author Willy Brandt could grow to a great politician of the peace and at the same time, Berlin turn out the symbol of the peace from the Cold War symbol.

Key Words: Semiotics, Constructivism, Willy Brandt, Berlin, Ostpolitik and European Integration Policy